

2024 말리 시카소 사업장자립 보고



Save the Children

세이브더칠드런

말리 시카소 결연사업장

Since 2008



세이브더칠드런은 2008년부터 말리 시카소(Sikasso)에서
해외결연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기간 함께 해주신 후원자님 덕분에 이제 시카소 지역은 자립하게 됐습니다.
모든 해외결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후원자님의 따뜻한 마음이 한데 모인
시카소 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70개**의
영유아발달센터(Early Childhood Care and Development)가 세워졌고,
2014년에는 영유아발달센터의 아동 출석률 **100%**를 달성했습니다.
2014년부터 **253개** 학교에 남·여 전용 화장실을 짓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2015년에는 생리기간에 학교에 출석하는 여아의 비율이

기존 2%에서 **50%**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기존에 진행하던 영유아발달, 기초교육, 학교보건과 영양 프로그램이 안정화됐고,
청소년기 발달 프로그램을 처음 시행하여 **11개** 지역 모임에서

청소년 대상 성교육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는 청소년 **13,923명**이 성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모두 후원자님 덕분입니다.

후원자님과 세이브더칠드런이 함께 만들어낸 끝없는 변화, 더 자세히 만나볼까요?

2008~2013



영유아발달센터
(Early Childhood Care and Development)

70개 건립

2014



영유아발달센터 아동 출석률
100% 달성

2015



남·여 전용 화장실
253개 설치 및 관리

2017



생리기간 중 학교에 출석하는 여아 비율
2% → 50%



영유아발달, 기초교육, 학교보건 및 영양 프로그램 안정화
청소년기 발달 프로그램 첫 시행

11개 지역 모임에서 청소년 대상 성교육 시작



성교육에 참여한 청소년
13,923명

후원자님과 세이브더칠드런이 함께 만든 변화

1. 할머니 리더들의 특별 강연으로 조흔 예방



조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할머니 리더

할머니 리더는 ‘나무 아래에서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Grandmother sessions under the tree)’ 특별 강연에서 여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조흔, 조기 임신, 성병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강연에서 아동은 자신이 겪은 힘든 상황에 대해서 할머니 리더와 편안하게 상담하고, 할머니 리더는 세이브더칠드런 직원과 의논하여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2019년



연 24회 강연



2021년



연 95회 강연

할머니 리더들의
연간 강연 횟수가 증가하여
이 강연에 참여했던
아동들의 조흔을 예방했고
수업 참여도가 향상됐습니다.

2. 영유아발달센터 지원으로 아동의 학교 출석률 향상



개보수 전 학교



개보수 후 학교

영유아발달센터(Early Childhood Care and Development)에서는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교구를 활용해 글자와 숫자를 재밌게 가르쳐 줍니다. 영유아발달센터에서 이미 글자와 숫자를 익힌 아동들은 초등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고, 사회성이 발달하여 학교에 더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016년



5,76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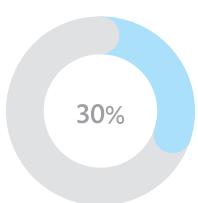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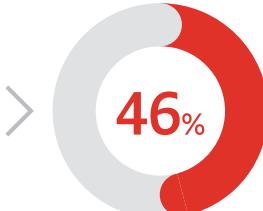
7,980명

영유아발달센터를 다니는
아동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2015년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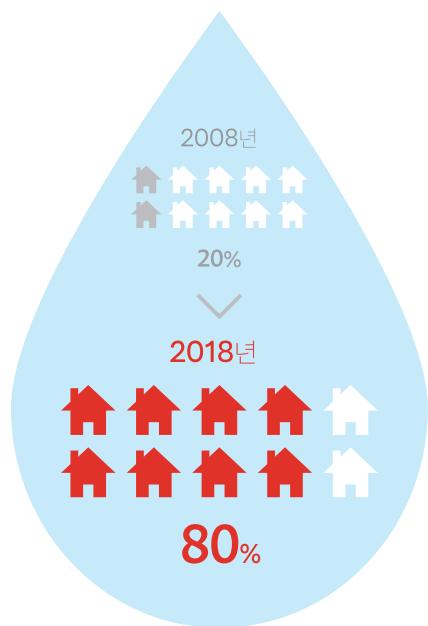
영유아발달센터에서
읽기와 쓰기를 배우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3. 수도시설 지원으로 깨끗한 식수 제공



새로 지어진 태양열 급수탑(Solar water tower)

세이브더칠드런이 시카소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인 2007년에는 수도시설이 부족해 아동들은 부모님을 도와 멀리 물을 길러 다녀야 했습니다. 이제는 18개의 수도 시설이 새로 지어져서 아동들은 멀리 물을 길러 다니는 대신 학교 숙제를 하고 친구들과 노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집과 가까운 곳에서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있는 가정의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4. 정기적인 교사 교육 진행 및 청소년 또래 교육자 증가



기초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들

정기적인 교사 교육을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교구와 노래를 활용해 즐겁게 수업하는 방법을 알려줬고, 아동들은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45%

2021년



꾸준히 학교에 출석하는

아동의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100%

청소년 또래 교육자 그룹은 다양한 연령대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성 건강, 조훈, 청소년 임신 관련 교육과 토론을 진행하여 인식 개선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개인사정(임신, 중퇴 등)으로 학교를 결석하는 친구들이 정기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친구들의 부모님을 만나 설득하기도 합니다.

2022년

2015년



13개 그룹

25개 그룹

청소년 또래 교육자 그룹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5. 가축 지원으로 가정생계지원 확대



가축(양, 염소)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아동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이 매일 신선한 우유를 마실 수 있도록 각 가정에 양과 염소를 지원합니다.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주변 이웃에게 나눠주거나, 새끼를 팔아서 곡식과 생필품을 사는 등 중요한 생계수단이 됩니다.

2015년



2022년

가축을 지원받은
가정이 증가했습니다.

312 가정 지원

960 가정 지원

의사를 꿈꾸는 알리 이야기



“저는 시카소에 사는 15살 알리(Ali, 가명)에요. 세이브더칠드런이 저희 마을에 들어오기 전에는 깨끗한 식수가 부족했어요. 학교에서 목이 마르면 수업에 집중하기가 어려웠고, 집에서 양동이째 물을 담아 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학교에 공용 화장실은 있었지만 남자애들과 같이 사용해야 했고, 화장실에는 휴지나 비누가 없어서 야외에서 볼 일을 보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와 제 친구들은 학교에 자주 결석해서 유급하곤 했죠.

하지만 세이브더칠드런 덕분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어요! 수도시설을 지어준 덕분에 학교나 집에서 목이 마를 때면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이제는

비누와 휴지가 채워진 깨끗한 화장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계속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방과 후에는 친구들과 돌아가면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하기도 해요. 특히 **인식 개선 특별 강연을 통해 야외 배변이 건강에 해롭고, 손을 비누로 깨끗하게 씻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학교 수업을 빠지지 않고 듣게 되면서, 저에게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저는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지원해 준 다양한 책을 읽는 시간을 좋아해요. 앞으로도 책을 많이 읽고 의사의 꿈을 이뤄서 마을에 보탬이 되고 싶어요. 특히 임산부와 아이들을 위해서요!”

시카소에서 보낸 감사 메시지



"I ni ce(아니체, 안녕하세요). 저는 말리의 해외결연 사업 총괄 담당자 조소에 (Zosoué)입니다. 시카소 지역에 세이브 더칠드런이 들어온 지도 15년이 훌쩍 지났는데요. 그 전에 이 곳은 전쟁과 테러로 무장세력에 의해 통치됐습니다. 해외결연 프로그램이 한창 진행되던 2020년에 닥친 코로나로 또 한번 힘든 시간이 찾아 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장 자립을 맞이하게 된 건 다 한국에 계신 후원자님 덕분이에요.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지원준 영유아발달센터와 학교에서 아동들은 더 안전하고 즐겁게 공부하고, 깨끗한

화장실과 수도시설을 이용하며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지게 됐어요. 시카소 지역은 앞으로 자체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할 준비를 마쳤어요. 그동안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해외결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배운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반가운 변화는 아동들이 긍정적으로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2008년부터 함께해 주신 후원자님 덕분에 시카소 아동들은 밝은 웃음을 되찾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시카소 지역을 응원해 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동의 목소리로 직접 듣는 변화



세이브더칠드런 덕분에...

- 마을에 새로 생긴 영유아발달센터를 다녔어요.
- 집 근처에 수도시설이 생겨서 더 이상 멀리 물을 길러 가지 않아도 돼요.
- 학교에 상비약이 구비되어 필요한 약을 구할 수 있어요.
- 모기장을 지원받아 집에서도 안전하게 숙제를 할 수 있어요
- 깨끗하게 손을 씻는 방법을 배워서 동생들에게도 알려줬어요.
- 학교에 읽을 책이 많아졌어요.
- 여자 화장실이 생겨서 이제는 생리 기간에도 걱정 없어요.
- 한국에 사는 친구가 생겼어요.



Thanks to you, I

Grâce à vous, je

*My school received school supplies. Ils ont bénéficié des fournitures scolaires.
medicines, an early childhood health center, nous avons reçu des médicaments
care and development center, nous avons reçu un CDPE
I learned how to read and write. Suivant le fil de l'écriture*

편지에 담긴 아동의 목소리(현지 직원이 번역한 영문(좌), 아동이 직접 작성한 현지어(우))

"후원자님 덕분에, 이제 학교에는 학용품과 약이 부족하지 않아요.

새로 생긴 영유아발달센터에서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된 것도 참 감사해요!"

어른의 목소리로 직접 듣는 변화

2010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지원하는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양한 교구와 노래를 활용한 수업 방식에 아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니 뿌듯한 마음이 큽니다.

– 세이두(Seydou, 초등학교 선생님)

2011

저는 딸 7명과 아들 3명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중 5명은 해외결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지어준 깨끗한 회장실과 개수대 덕분에, 아이들이 예전보다 더 즐겁게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 마마두(Mamadou, 10명의 자녀를 둔 아빠)



2015



말리의 지리적 특성상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지역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아동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 덕분에 시카소 사업장은 매년 더 발전하고 있어요!

– 라파엘(Raphael, 사업장 직원)